

남자는페미니스트가될수없다

키야

키야
남자는페미니스트가될수없다
2022 년 1 월 12 일

난아래문제에대해파격적인이론을제기할만큼뚝뚝하지도, 새로운관점을제시할만한사회적위치에놓이지도않았다. 페미니즘에관심이없는사람을설득할수도없을것이고, 이주제에대해박식한자는כות방귀뀌며넘길수도있다. 다만, 독자가 페미니스트운동에의욕이앞서페미니스트를자칭하는시스젠더남성이라면이문제에대한다음과같은내관점을공유한다.

성과젠더에대한내생각들을모아놓고분석해본다면, 페미니즘의요소가많겠지만, 난페미니스트라자칭하지않는다. 남자는페미니스트가될수없기때문이다.

아직철이덜든사람들은페미니즘을여성우월주의과동치라고여기겠지만, 그들이뭐라하든, 페미니즘은성과젠더간의억압적인관계를허물고평등한사회를만들기위한운동이다. 조금더구체적으론, 성차별주의와가부장제를없애는것이페미니즘의목표이다. 남성이주도하는체제에반대하고맞서는운동이기때문에“여성주의”, 즉페미니즘 (feminism)인것이다.

가부장제는남성의사회적권위와통치를정당하게여기는위계구조이다. 즉, 남성이아닌모든이, 특히여성을복종시키는체제이다. 여성이단순히여성이라는이유로사회적하위계층에놓고, 같은원리로남성은단순히남성이라는이유로다른모든성과젠더의머리위에놓인다. 이렇게남성과여성은서로대립구조에놓여, 한쪽에게는특권을, 다른하나에는억압을선사한다. 이런가부장제는지배자가될남성과피지배자가될나머지성들이존재해야만성립한다. 때문에, 성차별적인환경에서자라이부조를내면화하고, 수많은이들의고통을유발하는가부장제의혜택을누리는남성은그존재자체가여성과다른모든성과젠더에게는억압적이다¹.

일부남성은그특권을누린다는것을체감하지않을수있다. 또일부는심지어여성보다불리한상황에처했을수있다. 나아가모든여성이남성보다아래에놓이지않았다는것도사실이다. 하지만이는가부장제에의한불평등이존재하지않는것이아닌“교차성”(intersectionality)에의한것이다.

사회는복합적인상호작용으로이뤄져있다. 사람이다른사람과관계를맺을수있는방법은무수히많고, 이때형성될수있는억압적관계의종류

¹ 이내용을자신의정체성에대한공격으로받아들이거나, 자신의남성성에죄책감과무기력함을느낀이들을위해다음을강조한다. 이문제는“악한사람”또는“착한사람”에의한문제가아니다. 복합적인체제가한성을다른나머지성위에다가놓은, 개개인의문제가아닌우리모두를에워싸는구조상의문제이다. 위내용은모든남자가필연적으로“악”하다는말이아닌, 억압적인성차별적구조의꼭대기에놓였다는말이다. 아나키스트라면이러한구조적인문제가존재한다는사실은이해하기어렵지않을것이다.

도그만큼 많다. 투표권을 지닌 노동자 양성애자 시스젠더 장애인 남성과, 건강한 신체를 지닌 외국인 트랜스젠더 부르주아 여성이 있다면, 이들 중 누가 절대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놓였을까? 다양한 사회정치적 요소가 서로 엮여 갈려편의를 받거나 해를 입는 것이 교차성이다. 어느 한 방면에서는 억압을 행하는 자는 다른 여러 방면에서는 억압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성차별주의와 가부장제는 여성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다. 남성도 이런 체제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상적인 남성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남자도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요구된 남성성을 충족한 남자는 지배자가 될 수 있어도, 여성성을 충족한 “완벽한” 여성은 결국 남자의 지배를 받는 여성이다. 가부장제 사회의 눈에 “최고의 여성”은 남자가 거느리기 편한 아랫것에 지나지 않는다. 서로 같은 총의 피해를 입는 다해도, 하나는 반동 때문에 개머리판에 걸린 어깨가 나가는 정도이고, 다른 하나는 발사된 총알을 맞는 상황이다.

가부장제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이 사실을 자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억압적 체계가 의도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이기도 한다. 특권을 누리는 자는 그 불평등한 상태가 자신에게는 해롭지 않기에 자연스럽다 여기기 마련이다. 남자인 우리는 비록 남자이기에는 겪은 압박감과 부당함을 알아도, 여성이기에 겪는 고통을 알 수는 없다. 막을 수 없는 생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 가족 내에서 여성이기에 항상 뒷전에 남겨지는 것, 실패를 하면 여성이기에 당연하고 성공을 해도 자신의 성공이 아닌 “특출난 여성”의 성공으로 기억되는 것, 압도적으로 높은 성폭력을 당할 확률과 폭력을 당해도 낙인은 피해자에게 찍히는 것, 대부분의 정신적 육체적 압박을 책임져야 하는 육아를 도맡는 것은 선택이 아닌 자연스러운 사실로 여겨진다는 것, 자신의 신체를 상징적으로 토막내 값을 매기는 사회에서 산다는 것...

이 말고도 수많은 형태의 억압을 받으며 살지 않는 것이 성차별 가부장제 사회에서 특권층인 남자로서 사는 것이다. 이런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성차별적 사회의 구조는 남자의 발밑에 여성을 굴복시킨다. 가부장제가 사람의 의사를 고려했다면 과연 억압적일까?

특권은 그것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를 구별지어야만 성립하기에, 남자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억압자가 되는 것이다. 남자로서 존재하기에, 여성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에 연대할 수는 있어도, 이를 절대로 체감할 수 없고,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내가 페미니스트를 자칭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는 날 남성으로 인식하기에 내게는 그에 따른 기회가 더 주어진다. 나는 페미니즘이라는 강령을 통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생각을 듣게 할 수 있다. 페미니즘이 기껏 마련한 남성의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안전지대에 내가 끼어들어 그곳의 다른 성과 젠더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싶지 않다. 세상이 들어야 하는 것은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이지, 나와 같은 또 하나의 남성의 목소리가 아니다. 페미니스트 운동에 있어 남자로서 내 역할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와

내 주변의 남자들이 행하는 억압을 멈추고 남자로서가부장제에도전을 거는 것이다.

성평등은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지만, 성차별과 가부장제에 맞서 싸우는 것은 남자가 아닌 이들의 몫이다. 남자인 우리들은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연대를 하는, 이 투쟁의 주도권을 권 페미니스트가 아닌, 동맹자의 역할에서 그친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을 인지하고, 다른 모든 성의 고통에 공감하고, 페미니스트의 투쟁에 연대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와 주도권을 대체할 생각은 없다. 페미니스트를 자칭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남자는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다.